

트럼프 대통령 취임 50일, 상상 이상이 된 현실

돌파구는 미국 ‘안’에 있다

삼일PwC경영연구원
March 2025



※ 본 자료는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정책이 계속되어 변화되고 있는 바, 이점 유의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wc

삼일회계법인

들어가며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어느새 50일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남은 4년이라는 임기에 비교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50일 동안 트럼프 2기는 자신이 내걸은 공약을 다 이행하려는 듯 빠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취임식 당일에만 관세 부과, 화석연료 규제 완화 등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26개의 행정 명령을 내렸으며, 관세 확대론자·대중국 강경파 중심의 내각 구성을 통해 거침없이 정책을 밀고 나갔습니다. 이는 전 정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속도감입니다. 지금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경제 성장과 패권에 방해가 되는 부분을 살살이 찾아내고 있는 중이며, 새로운 결정 사항과 행정명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트럼프 2기의 특징은 미국 성장에 불이익을 주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만 견제했던 1기 때와 다르게, 지금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 전쟁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랜 동맹국이었던 한국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3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을 통해 이를 증명해주었습니다. 트럼프 2기는 무역 수지 적자국을 중심으로 관세 폭격을 가할 방침이라, 2024년에만 66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안긴 한국도 관세 폭탄 사정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5대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의약품에 대해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한국 산업계의 불안감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2기는 오는 4월 2일에 상호관세를 제시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어, 한국의 대응과 전략 구축은 보다 속도를 낼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트럼프 2기 취임 50일간의 행보와 정책 진행 사항을 분석해, 한국 주요 산업이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트럼프 2기 행보 속에서, 한국 산업이 돌파할 수 있는 전략은 미국 ‘안’에 있음을 밝히며, 본 보고서를 통해 관련 기업이 준비 태세를 높여 가길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 Talk. Talk.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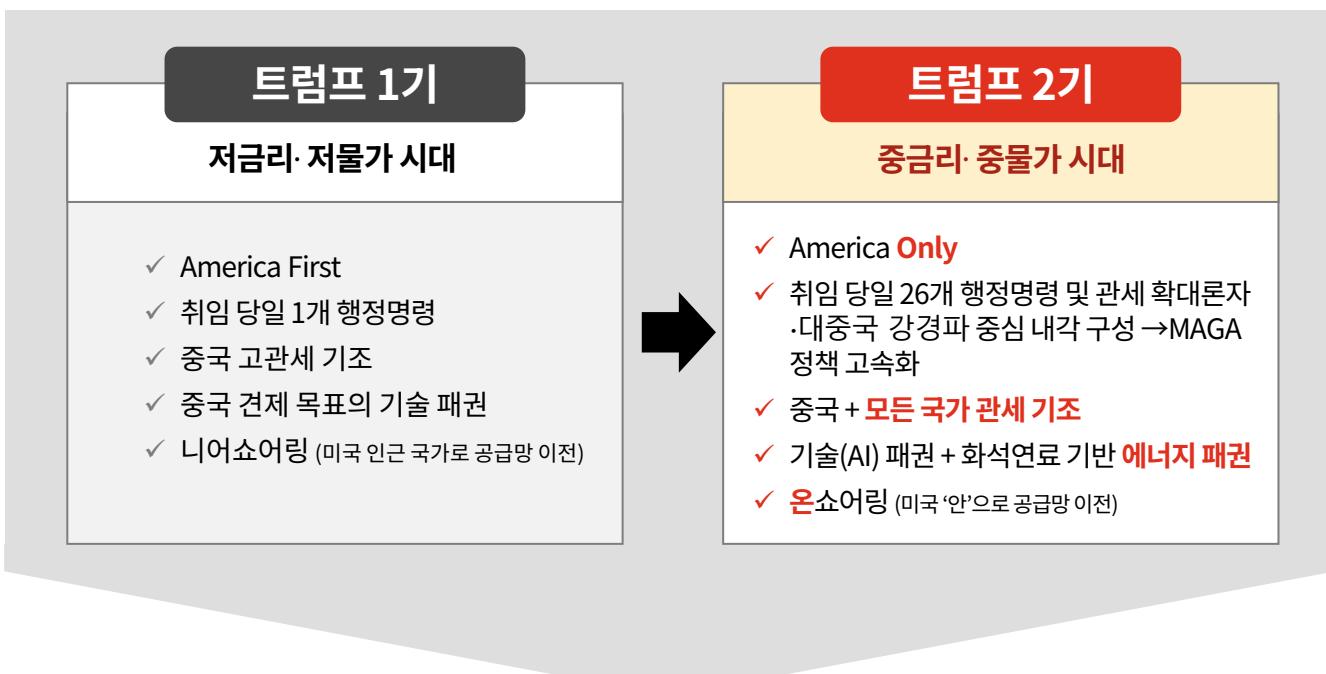
Q: 취임하고 3주 동안, 국경 정책 대변화, 범죄자에 대한 ICE 단속, 여성 스포츠에서의 생물학적 남성 제외, 에너지 정책 대변화 등 큰 이슈들을 해결했습니다. (빠른 속도의 정책 이행 측면에서) 45대 대통령과 47대 대통령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45대 행정부 때는 엄청난 반대가 있었고, 사람들을 잘 알지 못했으며 필요한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직책에 임명한 사람 몇몇은 훌륭했지만, 몇몇은 임명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워싱턴 D.C 경험이 있었다면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당시 저는 뉴욕 사람이었지 D.C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 ‘25년 2월 9일 Fox News와의 취임 후 첫 공식 인터뷰

Executive Summary



한국의 대응 전략

미국 ‘안’에서 돌파구 찾기

+

에너지가 통상 협상의 Key

세부 산업 측면

전망

한국 5대 대미 수출품* 고관세 빨간불
* 자동차,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25% 관세 예고

화석기반 에너지(LNG, SMR), AI, 방산
분야에서 한국 산업 수혜 전망

전략

대미 수출 제조업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AI, 방산

미국 생산 현지화 전략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대미 수출 확대

1. 트럼프 2기 취임 50일 행보 (1/6)

▪ ‘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에 가까운 강력한 실행 계획 제시하며 취임

- ‘17년 트럼프 1기 취임사: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2개 원칙* 아래 미국 우선주의 강조
 - * 미국 경제 재건에 적용할 ①미국 제품 구매 ②미국인 고용 원칙 제시
- ’25년 트럼프 2기 취임사: MAGA** 중심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무역(관세 부과), 경제산업(화석연료 확대 기반 美제조업 부활), 안보(불법 입국 즉각 중단) 측면에서 제시 → 미국만의 이익 약속
 - **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미국 우선주의 강조하는 트럼프 대선 슬로건

▪ 특히, 트럼프 2기 취임사에서는 1기 때와 달리, 에너지 패권 강조하며 원유 증산 선포

- 인플레이션 원인을 바이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지목. 이에 따라, 트럼프 2기는 석유 시장 재개 및 개발 확대하여 에너지 가격 하락화 추진 예고
- 미국 내 풍부한 석유, 가스 기반으로 미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에너지를 대외 무역 수지 개선 전략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

트럼프 행정부 취임사 비교 (1기 ‘17년 vs. 2기 ‘25년)

| 구분 | 트럼프 1기: 2017년 취임사 | 트럼프 2기: 2025년 취임사 |
|-----------|---|--|
| 美 우선주의 | 지금 이 순간부터, 미국 우선으로 갈 것이다. | 트럼프 행정부 내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정책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
| 무역 | 무역, 세금, 이민, 외교 문제에 대한 모든 결정은 미국 노동자와 가족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루어 질 것이다. | 미국 노동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시스템을 즉각 개혁할 것이다. 미국 국민에게 과세해 다른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지 않고,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해 미국 국민을 부유하게 할 것이다. |
| 경제·산업 | 이제 미국인의 손과 노동으로 미국을 재건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간단한 원칙을 준수할 것이다. |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 사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린 뉴딜을 끝내고 전기차 의무를 철회하며, 미국 자동차 노동자에게했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
| 에너지 | - | 인플레이션 위기는 대규모 과잉지출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의해 야기됐다. 그래서 오늘 에너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다. 미국은 다시 석유를 시추하고, 자원을 활용할 것이다. (중략) 우리는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고치로 채워, 전세계에 미국 에너지를 수출할 것이다. |
| 국경, 불법 이민 | 미국은 다른 국가가 우리 제품을 만들고, 우리 기업을 훔치고,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위해 국경을 보호해야 한다. |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며, 수백만 명의 범죄 이민자들을 그들이 온 곳으로 되돌려 보내기 시작할 것이다. |

Sources: The White House, 삼일PwC 경영연구원



트럼프 2기의 선거 공약의 주요 내용은 ‘트럼프 2.0 시대 도래에 따른 영향 점검 (‘24.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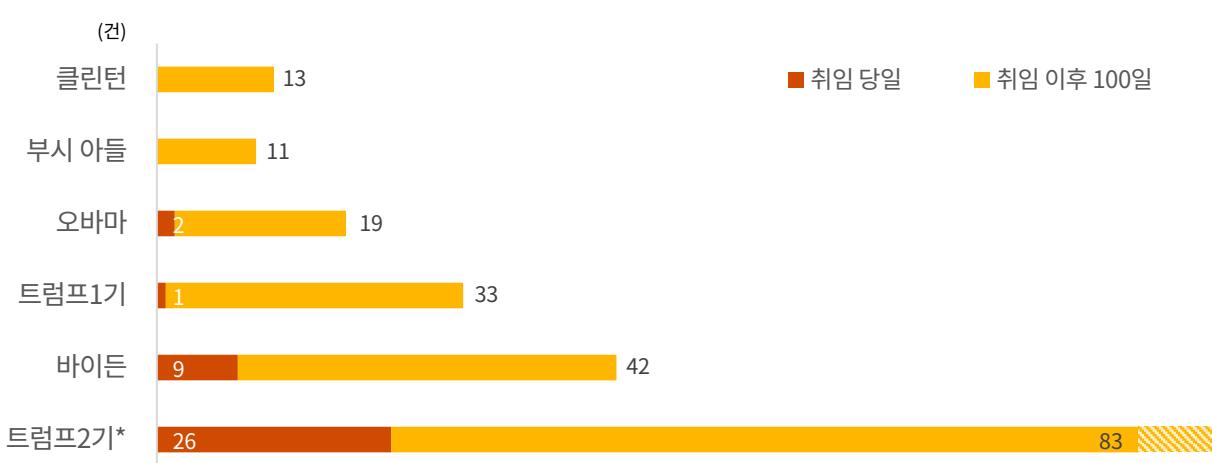
1. 트럼프 2기 취임 50일 행보 (2/6)

- 취임 후 바로, 행정명령 통해 대선 공약 이행 중. 지금까지 83개 행정명령* 서명해 ('25.3.10 기준) 역대 美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속도이며, 주 분야는 통상·외교, 기후·에너지, 재정·기술, 이민·국경, 사회 개혁 등
 - 통상·외교: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중국 등 관세 부과, 철강·알루미늄 제품 기준 면제 퀼터 폐기 등
 - 기후·에너지: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신규 원유 개발 금지 취소,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등
 - 재정·기술: AI 안전성 테스트 보고 의무 철회, 국부펀드 설립 등
 - 이민·국경: 국경 비상사태 선포, 마약 카르텔을 해외 테러조직 지정 등
 - 사회 개혁: DEI(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프로그램 종료, 연방 사형제도 복원 등

*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행정집행 명령 권한. 의회 사후 승인이 불필요하며, 대법원이 헌법 불합치를 결정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광범위한 자율성을 인정받고 있음. 외교·안보 등 신속 대응이 필요한 경우, 의회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존중

역대 美 대통령 취임 후 100일 이내 행정명령 횟수

'25.3.1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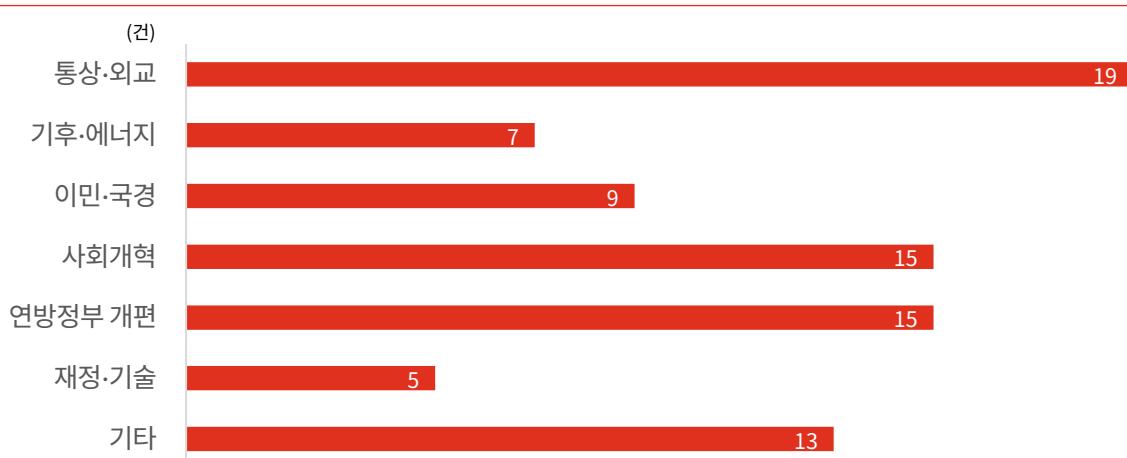


* 트럼프 2기는 현재 기준('25.3.10)으로 집계. 100일 기준으로 더 증가 전망

Sources: Federal Register, American Presidency Project, 언론보도 종합

트럼프 2기 행정명령 (분야별)

'25.3.10 기준



Sources: Federal Register, 삼일PwC 경영연구원

1. 트럼프 2기 취임 50일 행보 (3/6)

트럼프 2기 주요 행정명령

'25.3.10 기준

| 구 분 | 주요 내용 | 일 자* |
|--------|---|------|
| 통상·외교 |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美 상무부 4/1 검토 결과 제출) | 1/20 |
| | 만성적 무역적자 요인 경제·안보 측면에서 영향 조사 시행 | 1/20 |
| | 중국 10% 추가 관세 (2/4 즉각 시행) | 2/4 |
| |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부과 (4/2까지 유예) | 3/4 |
| | 철강·알루미늄 제품 기존 면세 퀄터 폐기, 전세계 25% 부과 (3/12 시행) | 2/10 |
| | 국가별 무역협정 재검토해 상호관세 조치하기로 결정 | 2/13 |
| |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구리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 2/25 |
| 이민·국경 |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목재·원목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 3/1 |
| | 남부 국경 국가 비상상태 선포 (멕시코 국경 1,500명 정규군 파견) | 1/20 |
| 재정·기술 | 마야 카르텔 해외 테러조직 지정 → 펜타닐 공급국 고관세 등으로 대응 예고 | 1/21 |
| | AI 안전성 테스트 보고 의무 철회 | 1/20 |
| 기후·에너지 | 국부펀드 설립 | 2/3 |
| | 파리기후변화협정 재탈퇴 (UN 통보 기준 1년 후 효력 발생) | 1/20 |
| | LNG 수출 승인 동결 해제 | 1/20 |
| |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 1/20 |
| |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NEDC) 설립 (NEDC에 석유, 휘발유 생산 증가 요구) | 2/14 |
| 사회개혁 | 육·해상 풍력 프로젝트 승인/허가/대출 일시 중단 | 1/20 |
| | DEI(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정책 프로그램 종료 (美 법원 DEI 정식 판결 결정시까지 행정명령 중지 명령, 2/21) | 1/20 |
|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 권한 확대: DOGE 대표 정부 기관 파견 및 정부 지출 투명성 검토 권한 부여 | 2/26 |

*트럼프2기에서 행정명령 서명한 일자(미국시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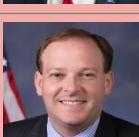
Sources: Federal Register, 언론보도 종합

1. 트럼프 2기 취임 50일 행보 (4/6)

- 트럼프 2기, 경제 부처에는 관세 확대론자, 외교·안보 부처에는 대중국 강경파를 중용하여 내각 구성
→ 정책 일관성으로 공약 추진에 속도 받을 전망이지만, 양극화 및 갈등 우려도 공존

트럼프 2기 주요 내각 구성원

'25.3.4 기준

| | | | |
|--|--|--|---|
|  | 부통령 - J. D. 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트럼프 2기 러닝메이트강경 美우선주의, 고립주의 외교 성향 |  |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反중국 성향, 대중국 강경파러우 전쟁 종식 찬성, 우크라 지원 반대 |
|  | 재무장관 - 스콧 베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보호무역주의, 보편관세 도입 지지암호화폐 옹호, IRA 개혁 지지 |  |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중국 강경파관세 강화, 제조업 기반 강화 옹호 |
|  | 내무장관- 더그 버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석유 시추 지원, 셰일가스 적극 개발IRA 반대 입장 |  | 에너지장관 - 크리스 라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前 리버티에너지 CEO석유/가스 개발 옹호, 기후변화 회의론자 |
|  | 환경보호청장(EPA) - 리 젤딘 <ul style="list-style-type: none">환경 규제 완화 지지, 석유 시추 제한 반대IRA 반대 입장 |  | 국방장관 - 피트 헤그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트럼프 美우선주의 지지한 폭스TV 진행자해외 주둔 미국 철수 옹호 |

Sources: 언론보도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 취임 50일 동안 쏟아낸 행정명령과 정책 지지자 중심의 인선 구성은 맛보기 수준. 앞으로 무역 수지 적자 국 중심의 관세 폭탄과 동맹국 대미 투자 압박하겠다고 예고한 상황 → 한국 영향 불가피 전망
- 특히, 트럼프 2기는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의약품), AI, 화석연료(LNG) 등 주요 산업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정책 예고한 상태로, 정책 변화 지속적으로 확인해 대응해 나갈 필요

트럼프 2기 정책 예고 사항

'25.3.4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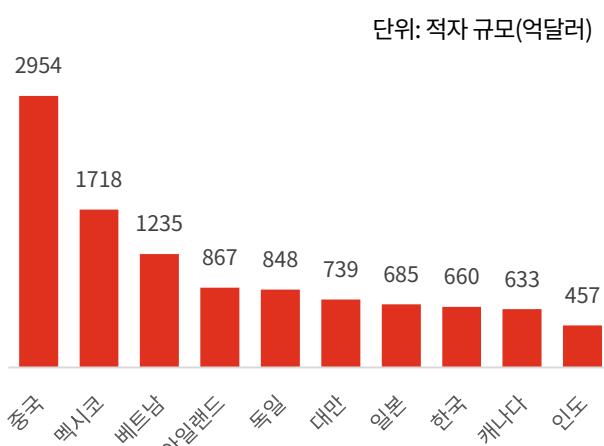
| 분야 | 주요 예고 사항 | 예고 일자 |
|---------|--|-------|
| 통상 | 미국 수입 자동차 25% 수준의 관세 부과 (4월 2일 부과 계획 발표) | 2/18 |
| | 4월 1일까지 국가별 무역 현황 검토 후, 예외·면제 없이 상호관세 부과 | 2/14 |
| | 부가가치세 시스템 운영국(예, 한국, EU 등) 대상으로 상호 관세 적용 | 2/16 |
| | 미국 수입 반도체 25% 관세 부과 (3월 중 부과 계획 발표 예정) | 2/19 |
| | 미국 수입 의약품 25% 이상 관세 부과 (1년에 걸쳐 인상 점차 확대) | 2/19 |
| |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 목재 수입품의 안보 영향 조사 | 2/19 |
| | 해외국의 미국 빅테크 규제 조사 및 부당 규제 확인 시 보복 관세 대응 | 2/21 |
| 외교 | 유럽연합(EU) 관세 25% 부과 | 2/26 |
| | 4월 2일부터 수입산 농산물 상호관세 부과 | 3/3 |
| 산업 | 북한 완전 비핵화 원칙, 한·미·일 3각 공조 유지 방침, 대북 협상 의지 천명 | 2/7 |
| |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 | 3/4 |
| | 오픈AI·오라클·소프트뱅크와 합작해 미국 AI 인프라에 5,000억 달러 투자 | 1/21 |
| 기후, 에너지 | 조지아주 포함 미국 내 글로벌 대기업 투자 확대 | 2/20 |
| 기후, 에너지 |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일본과의 합작 투자 가능성 지지 | 2/7 |

Sources: 언론보도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1. 트럼프 2기 취임 50일 행보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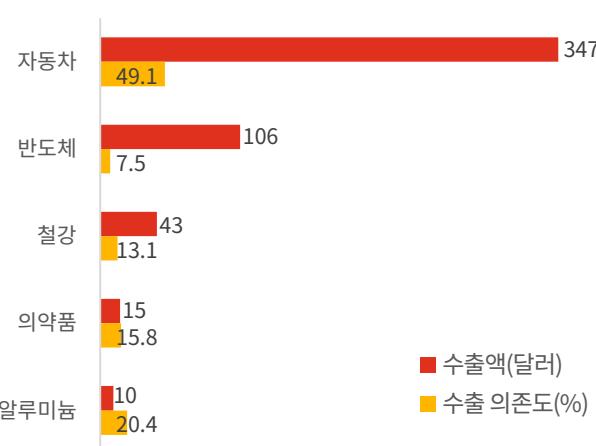
- 트럼프 2기는 이익만 챙겨가는 무역 적자국을 대상으로 고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게 기본적 정책 방향. 이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에 수입보다는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는 한국은 관세 직격탄 피하기 어려울 전망
 - 미국에게 있어, '24년 기준 무역적자국 1위는 중국(2,954억 달러), 8위는 한국(660억 달러)
 - 반면, 한국에게 있어 미국은 2위 수출국이자(1,278억 달러 대미 수출), 최대 흑자국(557억 달러)
- 특히,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은 관세 위기 품목 → 빠른 시일 내에 정부 및 관련 기업 대응 전략 구축 필요
 - 트럼프 2기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의 경우, 25% 이상 관세 부과 예고했으며, 철강·알루미늄에는 3월 12일부터 예외 없이 25% 관세 부과하기로 행정명령
- 이밖에, 트럼프 2기는 '화석연료 확대', 'AI 인프라 투자', '동맹국 방위비 지출 확대' 등에 집중할 예정 → 한국의 에너지, 디지털·AI, 방산 분야 예의주시 필요

미국 10대 무역적자국 현황('24년)



Sources: 한국무역협회, 미국 상무부, 삼일PwC경영연구원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 현황 및 의존도('24년)



Sources: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삼일PwC경영연구원

한국 산업이 주목해야 할 트럼프 2기 주요 정책 추진 현황

'25.3.4 기준

| 산업 구분 | 정책 추진 및 예고 현황 |
|--------|---|
| 에너지 | 에너지 관련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미국 석유·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 확대 행정명령 (1/20) |
| | 바이든 행정부의 LNG 신규 수출 동결 조치 해제(1/20) |
| | 알래스카에서 생산된 LNG의 미국내 공급 및 수출 행정명령 (1/20) |
| 디지털·AI | 육·해상 풍력 프로젝트 승인/허가/대출 일시 중단 (1/20) |
| | 오픈AI·오라클·소프트뱅크와 스타게이트 합작사 설립해, 미국 AI 인프라에 5000억 달러 투자 및 미국 각자에 데이터센터 등 구축 계획 (1/21) |
| 방산 | 미국 빅테크 기업에 디지털서비스 등 비상호적 세금 매기는 국가에 보복 관세 부과 예고 (2/21) |
| | 유럽연합, NATO 국가 국방비 증액 필요성 강조 (현행 GDP 대비 2% → 5%) (1/7) |
| | 트럼프 2기는 동맹국과 협력해 美 해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진행 의지 피력('24.11.7), 동맹국에 美 해군 함정 건조 허용하자는 법안 미의회 발의 (2/11) |

Sources: 언론보도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1. 트럼프 2기 취임 50일 행보 (6/6)

한국 주요 대미 품목 관세 부과 시나리오

-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에 현재 트럼프 2기가 예고한 25%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자동차, 철강, 의약품 분야는 큰 타격 전망
 - 반도체의 경우, 25% 관세 부과 시에도 한국산 범용 메모리 반도체 대체제가 없어 단기적으로 타격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 생산 공장이 한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등 직간접적인 영향 가속화될 수 있어 예의주시 필요
 -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관세 부과 추정 시나리오:
 - 한국 자동차 대미 현재 관세율 0%(347억 달러*) → 25% 관세 부과시 18.59%(64억 달러) 수출 감소
 - 한국 반도체 대미 현재 관세율 0%(106억 달러*) → 25% 관세 부과시 1.01%(1억달러) 수출 증가
 - 한국 철강 대미 현재 관세율 263만 톤까지 0%(43억 달러*) → 25% 관세 부과시 11.47%(4.9억달러) 수출 감소
 - 한국 의약품 대미 현재 관세율 0%(15억 달러*) → 25% 관세 부과시 7.37%(1.1억달러) 수출 감소
- * '24년 대미 수출액 기준

트럼프 대통령의 美 의회에서의 ‘한국’ 관련 발언 점검

- 트럼프 대통령은 3월 4일 개최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해, 조만간 한국과의 통상 협상 시작할 것으로 예상
* 미국 대통령은 매년 3월 한해 비전을 선포하는 의회 국정 연설 진행. 특히 취임 첫해는 향후 4년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합동연설로 이뤄져, 미 국민에게 상징적인 정치 행사
-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한국의 4배 높은 관세는 MFN 관세율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 추정
 - MFN(평균 최혜국 대우) 관세율이란 WTO 가입국 간의 최저 관세율. 그러나 FTA 등 양자 협정 체결 시 더 낮은 관세 적용. '24년 MFN 관세율: 한국 13.4%, 미국 3.3%
- 한국과 미국은 FTA 체결국으로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라 MFN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24년 기준)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4배 차이 발언은 사실과 다르기에, 통상 협상 시 논의 필요

트럼프 대통령 Talk. Talk. Talk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더 높습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나 다른 많은 방법으로 한국에 도움을 주지만, 4배 더 높습니다.

- '25년 3월 4일, 상·하원 합동 연설 중

2. 한국의 주요 산업별 영향 (1/6)



자동차

▪ (현황 및 전망) 트럼프 2기, 수입 자동차 25% 관세 부과 가능성 선언 → 현실화 시, 한국 자동차 수출 급감 전망

- 한국 대미 1위 수출품은 자동차로, '20년부터 대미 수출 규모 계속해서 증가 중 ('20년 171억 달러 → '24년 347억 달러)
-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2기가 선언한 25% 관세 부과 실현될 경우, 대미 자동차 수출 '24년 대비 18.6% 감소해 64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정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 美 25% 과세 부과 시 → 현대차 연 5.7조원, 기아 연 4조원 부담 발생 추정 (iM증권)
* 참고) 현재 미국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자동차(전기차 포함)에 대해 '16년부터 무관세 적용 중



Sources: 한국무역협회, 삼일PwC경영연구원

자동차 관세 부과 대미 수출 영향 시나리오

| 부과 시나리오 | 10% 부과 | 20% 부과 | 25% 부과 |
|------------------|--------|--------|--------|
| 수출 감소율 ('24년 대비) | 8.06% | 15.49% | 18.59% |
| 수출 감소액 ('24년 대비) | 28억달러 | 54억달러 | 64억달러 |

Sources: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삼일PwC경영연구원

▪ (전략 1) 협상 등을 통해 관세 영향 낮출 수 있는 여지 충분 → 한국 정부 및 관련 기업들 협상, 투자, 현지화 전략 등으로 관세 영향 최소화 필요

- 트럼프 2기는 4월 2일경 자동차 관세 발표 예정으로, 그전까지 협상 여지 남겨둔 상태. 트럼프 1기 전례*를 보면 협상 등으로 관세 영향 최소화 가능
* 트럼프 1기 초반 한국에 25% 관세 부과 예고했지만, '18년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무관세 유지
- 특히, 트럼프 2기는 미국 내 투자,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 등으로 관세 조율 의지 피력 → 한국 기업 전략 방안으로 고려
- 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가 25% 관세 부과 예고한 캐나다, 멕시코에는 한국 기업이 자동차 및 부품 생산 공장을 두고 있어, 직·간접적인 관세 영향 파악해 대응 필요

▪ (전략 2) 트럼프 2기는 전기차 의무화 폐지 등 反전기차 정책 추진 중으로, 관세와 함께 한국 자동차 업계가 챙겨야 하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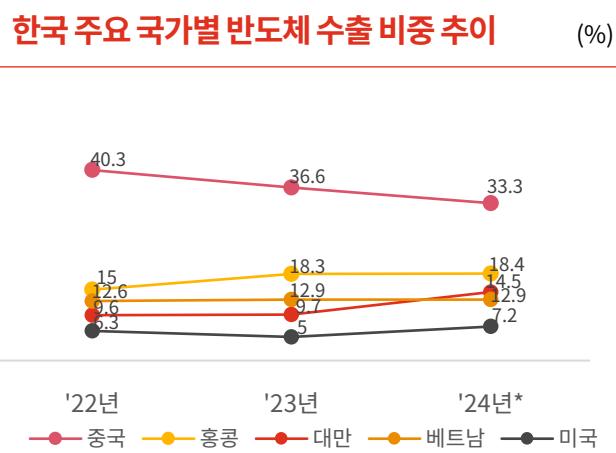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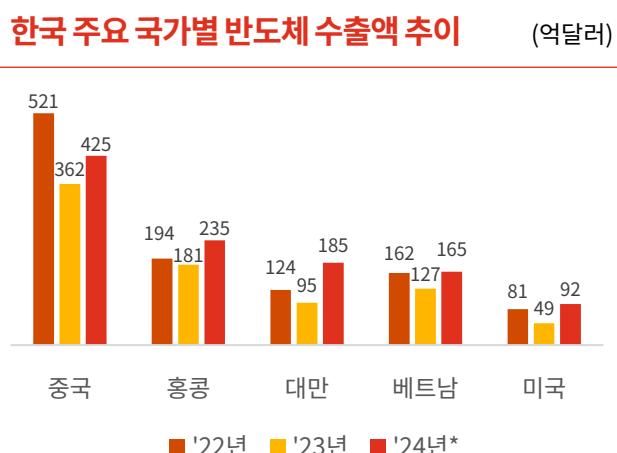
- 현재까지 트럼프 2기의 전기차 관련 행정명령은 ①2030년까지 전기차 50% 전환 의무화 폐지 ②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식 프로그램 및 인프라 재량 보조금 중단 → 전기차 미국 수출 업체 충격 예상
- 그럼에도 전기차는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와 전기차 판매 장려책(예, EU) 등에 힘입어, 전세계적으로 확대 지속 전망. 이에 따라, 보조금 영향 고려한 가격 조정, 자율주행 등 신규 수익 모델 창출,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의 유연한 전략 구축 필요

2. 한국의 주요 산업별 영향 (2/6)

반도체

- (현황 및 전망) 트럼프 2기, 반도체 25% 이상 관세 부과 예고 → 중국 등에 비해 미국 수출 비중 작아 단기적으로 영향 크지 않겠으나, 한국 주력 반도체 대부분이 국내 및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고 중간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 높아 예의주시 필요

- 한국의 반도체 대미 수출 비중은 7.2%로, 중국(33.3%), 베트남(12.9%)보다 낮은 수준으로, 고관세 적용 시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더불어, 글로벌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한국산 D램, 낸드플래시 대체제 없을 뿐더러, 수요처 대부분이 미 빅테크로 높은 수준의 관세 부과는 제한적. 이 영향으로, 25% 관세 부과 실현돼도, 대미 반도체 수출 '24년 대비 1.01% 증가 추정(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 한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D램 75.5%, 낸드플래시 55.8% ('24년 3분기)
- 하지만, 미국 선도 AI 붐 영향 등으로 대미 수출 비중 확대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가능성 높은 상황에서, 한국 수출 주력 메모리 반도체 70%가 한국, 나머지는 중국 등에서 생산되고 있어, 고관세 부과 시 타격 불가피
- 미국이 중국에 고관세를 실현하는 것도 한국 반도체 산업엔 큰 부담. 한국은 반도체 등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이를 가공해 미국 등에 최종재로 판매하는 상호보완적 교역 구조 아래, 한국의 중간재 수출에 대한 높은 중국 의존도는 미중 간 관세 전쟁 시 국내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 '24년의 경우, 1월부터 11월까지 수출 실적임

Sources: 한국무역협회, 삼일PwC경쟁연구원

- (전략) 반도체 고관세 부과는 미국에도 부메랑 될 가능성 높아, 실현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 그러나, 계속해서 관세 및 규제 카드로 압박할 것으로 보여, 미국 투자 및 현지화 전략으로 관세 리스크 줄일 필요
- WTO 협정에 따라 무관세인 반도체에 관세 부과할 경우, IT 등 다수 산업 침체될 뿐이라 한국 등의 첨단 메모리에 의존하는 엔비디아 등 빅테크 조달 단가가 상승해, 궁극적으로 미국 산업에도 악영향
- 그럼에도, 트럼프 2기가 반도체 고관세 예고한 이유는 반도체 패권을 장악하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확대하려는 목적. 실제로 반도체 관세 예고하며, 미국 생산 시 관세 부담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기 때문
- 이미 삼성, SK하이닉스 등 미국 내 파운드리 및 후공정 공장 건설 계획 중이나, 조만간 제시될 美 관세 방안과 반도체 보조금 변화 파악해 미국 내 현지 생산 방안 조정 또는 확대하거나, 미국 투자 등으로 리스크 완화 필요

트럼프 대통령 Talk. Talk. Talk

“우리는 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려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 그들이 미국으로 와서 여기에 공장을 세우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주고 싶다.” - ‘25년 2월 18일 기자회견 중

2. 한국의 주요 산업별 영향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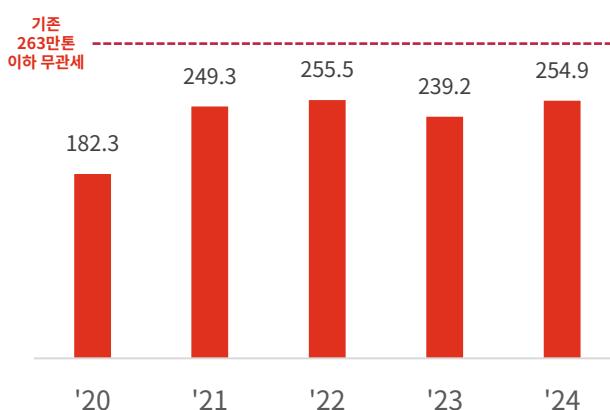
철강·알루미늄

▪ (현황 및 전망) 3월 12일부로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적용 → 한국 직접 영향권으로 타격 높을 전망

- 트럼프 2기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유로, 3월 12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예외 없이 25% 관세 부과 예정
*수입 품목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 (철강) 미국 수입 철강 제품과 파생제품에 25% 관세 적용됨에 따라, 그동안 수량제한 합의**에 기반해 무관세로 수출해왔던 한국 철강업계 타격 클 전망 → 25% 관세 시, 대미 철강 수출 '24년 대비 11.47% 감소(4.9억달러) 추정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 한국은 연 263만 톤 무관세 수출 적용 받는 절대 쿼터 합의 국가
- (알루미늄) 예외 국가 없이 모든 알루미늄 수입 관세 25% 인상됨에 따라, 한국의 경우 기존 10% 관세에서 15%p 상승되는 만큼 관련 기업 부담 가중. 특히, 대미 수출 대다수인 중소기업 중심으로 타격 클 전망 → 25% 관세 시, 대미 비철금속(알루미늄 포함) 수출 '24년 대비 10.31% 감소 추정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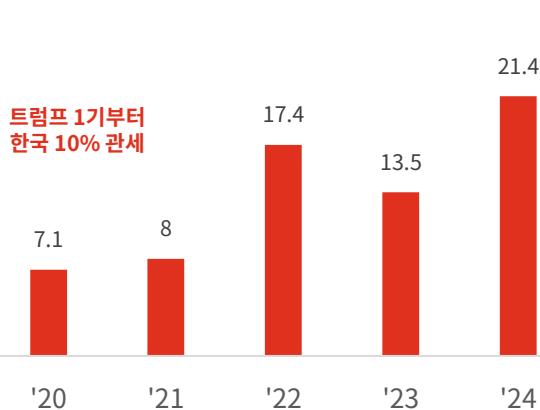
한국 대미 철강 수출량 추이

만 톤



한국 대미 알루미늄 수출량 추이

만 톤



Sources: 미국 국제무역청(ITA), 삼일PwC경영연구원

▪ (전략) 한국 정부의 관세 협상은 물론, 관련 기업의 미국 현지 생산 방안 등 강구해 리스크 최소화 필요

- 트럼프 1기에도 철강 25% 관세 부과 예고했지만, 한국은 협상 통해 직전 3년간 수출량의 70% 기준으로 무관세 쿼터(연 263만 톤) 적용 받았던 사례 참고해, 관세 협상 진행
- 더불어, 트럼프 2기에서는 미국에서 조강한 파생제품은 관세 품목에서 제외 예정으로, 관련 기업은 관세 상세 내용 파악해 미국 생산 현지화 또는 미국 내 법인/유통사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관세 영향화 최소 전략 구축

Plus +

- 트럼프 2기, 지난 2월 25일 구리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지시 → 구리 또한 고관세 대상 품목으로 지정 가능성 높은 상황
- 한국은 '24년 기준 구리 제품 594억달러 수출한 국가로(미국 구리 수입 상위 6대 국가), 관련 업계 예의주시 필요

2. 한국의 주요 산업별 영향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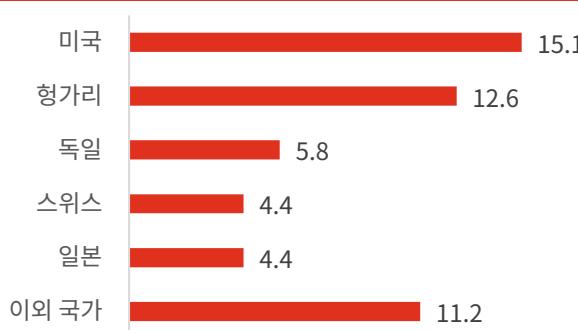


의약·바이오

- (현황 및 전망) 트럼프 2기, 의약품 25% 이상 관세 부과 예고 → 무관세 아래 급증한 의약품 대미 수출, 고관세 부과 시 기업별 경쟁은 있겠지만 악영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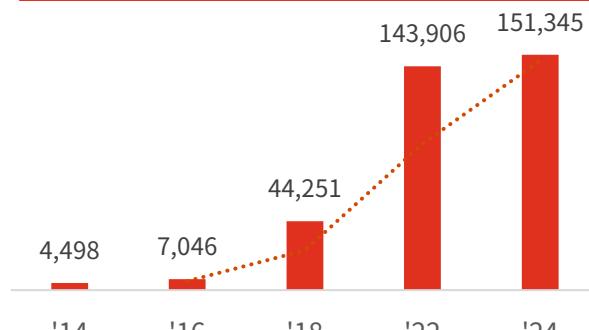
- 미국은 한국의 의약품 수출 1위국으로, 지난 10년간 대미 수출 30배 이상 증가: ('14년) 4,498만 달러→('24년) 15.1억 달러
- 사실, 한국 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와 CDMO가 트럼프 2기의 약가 인하와 중국 견제 기조 아래 성장 예상되었으나, 미국 수입 의약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시 수출 기업 타격 불가피할 전망 → 특히, 한국에서 완제품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유한양행, 녹십자 등 타격 받을 가능성 높후

한국 의약품 수출액 상위 국가순('24년) (억 달러)



Sources: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삼일PwC경영연구원

한국 대미 의약품 수출액 추이 (만 달러)



Sources: 한국무역협회, 삼일PwC경영연구원

- (전략) 의약품 고관세 현실화 지켜봐야 하겠지만, 기업별 공급망 및 조달 방식 검토해 대응 전략 구축 필요

- 현재 미국 내 병원 및 제약업계는 의료비 상승 등의 이유로 관세 부가 반대 의견 내고 있는 상태 → 의약품 고관세 현실화는 실제로 어렵다는 게 주류 의견
- 그럼에도, 트럼프 2기는 의약품 25% 이상 관세를 선언한 상태로, 관세 부과 범위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기업별 영향도를 체크해 관세 리스크 최소화해 나갈 필요
- 특히, 트럼프 2기는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 거점 이전과 미국 투자 확대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관세 대응 전략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트럼프 2기 의약품 관세 부과 시, 한국 주요 기업 영향

| 기업 | 대미 사업 유형 | 관세 부과 영향 | 영향도 |
|----|--------------------------|---|-----|
| A사 | 원료 의약품 형태로 글로벌 고객사 수출 | '23년 기준 미국향 수출비중 30% 미만으로 관세 영향 분담해도 영업 이익률 미치는 영향 적음 유럽 수출 비중(65.7%)이 미국(27.1%) 대비 높음. 신약 DS 수주가 압도적, 추가 수주 영향 최소화 전망 | 하 |
| B사 | 원료 의약품을 미국 법인에 이전가격으로 판매 | 미국 내 케미컬 의약품 생산 설비 보유 중. 현지생산 거점 마련에 유리 현재 이전가격 높게 설정돼 한국 모회사가 미국 내 비용부담. 이전 가격 조정으로 관세 영향 흡수 가능 | 중 |
| C사 | 혈장제제를 미국 법인에 판매 | 미국 내 혈장제제의 부족으로 높은 WAC가 형성돼 일정 수준의 관세 영향을 흡수 가능하겠으나, 수익성 감소 전망 | 상 |

Sources: 신영증권, 언론보도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2. 한국의 주요 산업별 영향 (5/6)

⚡ 에너지

▪ (현황 및 전망) 트럼프 2기 정책 핵심 중 하나는 '화석연료 확대' 통해 에너지 가격 낮춰 에너지 패권 장악과 경제 회복

- 트럼프 2기는 인플레이션 원인을 친환경 정책 때문이라고 보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 석유·가스 시추 및 생산 확대하여 에너지 가격 낮춰 제조업 강국 복귀 계획
- 이를 위해, 파리기후협약에 재탈퇴하고, 화석연료 규제 완화를 비롯해 전기차 의무화 폐지, 환경 정책 완화 및 허가 절차 간소화를 빠르게 진행 중

▪ 특히, 현시점에서 강하게 밀고 있는 에너지는 'LNG'와 'SMR(소형모듈원자로)' → 한국 산업 수혜 전망

- AI, 암호화폐,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미국 내 증가하는 전력 수요 충당위해, LNG와 SMR에서 답 찾아가는 중
- (LNG)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등의 이유로 제한해왔던 LNG 수출 규제 풀고, 수출 확대할 방침 → 이미 미국의 LNG 수출량은 세계 1위이나, 트럼프 2기 정책 힘입어 더 확대될 전망. 특히,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공들이는 중으로, 실현 시 한국 철강업·조선업 등 수혜 전망

*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1,300km의 송유관을 통해 알래스카 남부 수출터널미널로 운송한 후, 이를 LNG로 액화해 수출하는 프로젝트. 해당 프로젝트는 높은 환경 리스크로 회의적이지만, 트럼프 2기 추진 아래 실현될 경우 송유관 건설을 위한 고성능 철강재와 쇄빙 LNG선 수요가 증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 철강업 및 조선업 기회 확보 예상

- (SMR) 트럼프 2기는 SMR 가동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에너지지배지위원회 설치 행정명령 서명 → 미국은 2030년까지 최소 10기의 SMR 발전소 건설 목표를 제시한 상태로, 선도적 원전 기술을 통해 미국 등에서 SMR 사업 진행 중인 한국 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 가능

미국 LNG 수출 추이



Sources: 케이플러, Statista, 삼일PwC경영연구원

주요 한국 기업의 미국 SMR 협력 현황

| 기업 | 미국 SMR 사업 현황 |
|-------------|--|
| SK그룹 | • 테라파워에 2억5000만달러 투자 |
| HD현대 | • 테라파워와 차세대 SMR 공동연구 • 테라파워 나트륨 원자로 주기기 제작 수주 |
| 두산에너 빌리티 | • 뉴스케일파워 지분투자 및 원자로 소재 제작 • 테라파워 첫 SMR 주기기 제작성 검토 계약 • 엑스-에너지 SMR 주기기 제작 위한 설계 용역, 지분 투자, 핵심 기자재 공급 협약 |

Sources: 언론보도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 (전략) 트럼프 2기의 화석 연료 확대 정책은 한국에게 통상 압력 완화 수단이자 관련 산업 기회 확대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친환경은 여전히 글로벌 핵심 주제로 균형 맞춰 전략화 필요

- 한국 정부는 미국산 화석에너지 구매 확대 카드 통해 자동차, 반도체 등 관세 위기 품목 협의하여 통상 압력 완화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행정부의 LNG, SMR 사업 확대로 한국 산업 수혜 전망: LNG 프로젝트 → 한국 철강업·조선업, SMR → 한국 건설업·송배전 전력기기 생산업 등
- 그러나, 탄소중립은 여전히 글로벌 핵심 주제이자, EU 등 국가별 친환경 정책 기조 이미 궤도에 오른 상태로 계속 유지될 전망. 글로벌 진출 시장의 친환경 정책 고려해, 미국의 화석 연료 확대 정책 접근할 필요

2. 한국의 주요 산업별 영향 (6/6)



AI(인공지능)

▪ (현황 및 전망) MAGA 실현할 핵심 수단을 'AI'로 보고, 5000억 달러 투자해 AI 시장 주도권 장악 계획

- 미국의 AI 패권 강화 목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지원 아래 오픈AI·오라클·소프트뱅크가 스타게이트라는 합작사를 설립해 50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를 미국 내에서 진행할 예정
- 스타게이트는 텍사스를 시작으로 초거대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발전소를 미국 전역에 확대할 방침. 중장기적으로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범용 인공지능(AGI)를 개발할 계획
- 트럼프 2기가 AI 등 디지털 기술을 MAGA 실현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 미국 내 AI 인프라 투자 계획 밝춰 발표하는 중
 - *애플: 미국 내 AI 인프라 및 관련 서버 생산 설비 구축에 5천억달러 투자, 메타: 미국내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최대 650억달러 투자, MS: AI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에 800억 달러 투자 발표 등

▪ (전략) 중국 견제 아래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는 한국 AI 반도체와 전력 기자재 산업에 호재 예상. 한편, 한국은 AI 응용 기술 Fast follower로 미국 시장 진입해야

- 미국 내 AI 인프라 확대 사업에는 트럼프 2기의 중국 견제 기조에 따라 중국산 원자재/제품 사용은 철저히 배제될 전망 →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HBM 등의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용 대규모 전력망과 배선 기술에 있어, 한국 기업이 선택 받을 가능성 높후
- 대규모 투자로 미국 AI 패권 유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AI 기반 기술보다는 응용 기술 개발 및 확대하여 미국에서 사업 기회 확보할 필요. 파운데이션 모델 등 AI 기반 기술은 대규모 투자 및 시간 소요가 상당해, 빠른 시장 접근을 위해서는 AI 애플리케이션 등 응용 기술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



방산

▪ (현황 및 전망) 트럼프 2기의 동맹국 방위비 증액 요구 및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글로벌 안보 불안 가속 → 국가별 무기 도입 확대로 K-방산 기회 확대 전망

- 트럼프 2기 오는 6월까지 NATO 회원국에게 GDP 대비 2% 이상의 방위비 지출하라고 압박 → 덴마크는 500 억 크로네(10조원) 추가 편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는 등 동맹국 방위비 증액 움직임 확대
- 미국 국익만 살피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 영향으로, 다수 국가들이 미국의 안보 의존도를 낮추고 자주 국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 확산
- 이같은 상황에서 국가별 무기 수입이 확대되고 있어, 높은 기술력과 빠른 납기 인정받고 있는 K-방산 수혜 전망

▪ (전략) 한국과의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협력 필요성 강조하고 동맹국의 미 해군 함정 건조 가능 법안 추진 중 → 한국 조선업 순풍 예고돼 관련 기업들 미국의 신사업 기회 적극적으로 모색해 확보할 필요

- **미 해군 함정 시장 확대:** ① MRO 사업 규모 연 139억 달러, ② 미국 해군 '28년까지 1,468억 투자해 55척 함정 (급유함, 구조선, 유도미사일함 등) 건조 계획
- 글로벌 선박 수주 1위국인 중국에게 해상 패권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아래, 트럼프 2기는 동맹·우방국과의 美 해군 MRO 및 함정 건조 협력 강화하는 중
-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한국 정부에 MRO 협력 요청했으며, 동맹국 미 해군 함정 건조 막는 존스법* 개정안 현재 미의회 발의 중 → 군함 건조 기술력 높은 한국 조선업 기회 확대될 전망이며, 이미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사업 진출에 속도
- 더불어, 미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확대로 LNG 쇄빙선 등 한국 조선업 인기 끌 전망으로, 사업 기회 모색해 사업 확대 필요

*미국 내의 항구를 오가는 선박은 미국 내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운항해야지만 해상운송을 허가하는 법. 존스법으로 미국 기업이 자국 내 선박 건조 독점할 수 있게 되자 미국 조선업체들의 기술과 생산력 크게 퇴보

3. 시사점 (1/2)

트럼프 2기 주요 산업별 정책 방향과 한국 대응 전략

- 트럼프 2기는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 높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의약·바이오에 25% 이상 관세 부과 예고한 상태로, 한국 정부는 물론 관련 기업은 미국 현지 생산 및 투자 확대 카드 통해 관세 부담 완화 필요
- 미국산 화석연료 구매 확대 카드로, 한국의 관세 부담 완화 가능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글로벌 친환경 정책과 균형 맞춰 전략 구축 필요

| 주요 분야 | 트럼프 2기 정책 방향 | 한국 영향 및 대응 전략 | 전략 키워드 |
|---------|--|---|-----------|
| 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산 자동차 25% 관세 부과 예고 전기차 의무화 폐지 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대미 1위 수출품으로, 25% 관세 부과 시 수출 타격 높을 전망 미국 내 투자, 현지 생산 확대 등으로 관세 리스크 완화 가능 미국 전기차 의무화 폐지에 따라,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유연한 전략 구축 필요 | |
| 반도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산 반도체 25% 이상 관세 부과 예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미 수출 비중 상대적으로 작아 단기적으로 영향 크지 않겠으나, 대미 수출 주력 메모리 반도체가 미국 밖에서 생산되고 있어 예의주시 필요 미국 투자 및 현지화 전략으로 관세 리스크 완화 필요 | 미국 생산 현지화 |
| 철강·알루미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 12일부터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적용 구리 관세 필요성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 관세 적용 시 → 대미 철강 수출 10% 내외 감소 예상 트럼프 1기 시절, 통상 협상 성공 사례 참고하여 관세 리스크 완화 필요 미국 내 생산 확대통해 관세 영향 최소화 구리도 관세 대상 품목 지정 가능성 있어, 예의주시 필요 | |
| 의약·바이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산 의약품 25% 이상 관세 예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간 대미 의약품 수출 증가세로, 관세 부과 시 한국 산업 높은 타격 전망 생산 거점 미국으로 이전, 미국 통한 조달 방식 변경 등으로 관세 영향화 최소화 | |
| 에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든 행정부 친환경 정책 폐지 및 화석연료 확대 LNG, SMR(소형모듈원자로) 사업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산 화석에너지 수입 확대 카드로, 관세 위기 품목 통상 협의 필요 미국 LNG 확대 → 한국 철강업·조선업 수혜전망 미국 SMR 확대 → 한국 건설업·송배전 생산업 수혜 전망 친환경은 여전히 글로벌 핵심주제로, 미국 화석연료 확대 정책과 벨런스 맞춰 글로벌 시장 공략 필요 | 미국산 수입 확대 |
| 방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맹국 국방비 확대 요구 - NATO 회원국 GDP 대비 2% 방위비 지출 동맹국 협력 통한 미 해군 함정 MRO 및 건조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동맹국 무기 수입 확대 예상 → K-방산 수출 증가 전망 군함 건조 및 MRO 기술력 높은 한국 조선업 기회 확대 전망 | 대미 수출 확대 |
| A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패권 강화 목표로, 빅테크 투자 통해 AI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용 대규모 전력망, 배선 기술에 한국 기업 선택 받을 가능성 농후 미국 정부 및 AI 관련 미국 기업과의 협력 방안 모색 필요 AI 응용 기술 Fast follower로 미국 시장 진입 | |

 한국 조선업 기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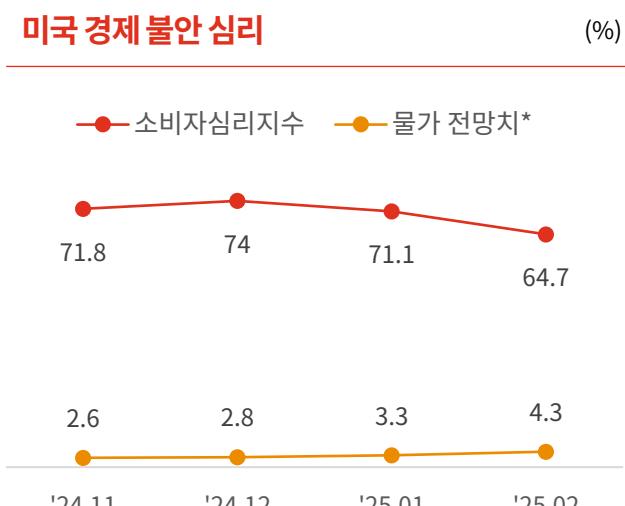
3. 시사점 (2/2)

고관세 현실화는 괴리 존재하나, 만일을 위해 철저한 대응 필요

- 트럼프 2기 취임 후 50일 동안 전세계 대상으로 관세 위협 중이나,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고관세 현실화는 발목 잡힐 듯
 -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여전히 4%대 유지 중인 상황에서, 무분별한 관세 부과는 미국의 물가 촉발시켜 인플레이션 증가 가능
 - 미 의회예산국(CBO) 추산에 따르면, 트럼프 2기 공약대로 모든 수입품에 10%(중국산 60%) 관세 부과 시 '26년 인플레이션 1%p 증가
 - 트럼프 2기발 관세가 예고만 된 현시점에도 미국 경제 불안 심리는 계속해서 증가 중: 미국 소비자심리지수 71.8%('24년 11월) → 64.7%('25년 2월), 미국 물가 전망치 2.6%('24년 11월) → 4.3%('25년 2월)
 - 중국에 관세 부과를 발효하기는 했지만, 고관세는 미국 경제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트럼프 2기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 이에 따라, 전세계 보편관세는 물론 반도체 등 경제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필수 제품에 대한 고관세는 실제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게 지배적 의견



Sources: FRED, 삼일PwC경영연구원



*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

Sources: University of Michigan, 삼일PwC경영연구원

- 그럼에도 계속해서 관세 위협하는 이유는? 관세 카드 통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투자 확대하기 위한 것
 - 트럼프 2기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산업에 대한 25% 이상 관세 부과를 4월부터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미국으로 공장 이전할 경우 무관세 가능하다고 강조하는 중
 - 더불어, AI, 반도체 등 경제 패권 장악에 중요한 산업의 경우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실제로 빅테크 중심으로 미국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중

Strategy

트럼프 2기발 관세를 피하고 고관세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미국 내로의 공장 이전 또는 현지화, 투자 등에 있음. 따라서, 한국 정부 및 관련 기업은 미국 '안'에 해결책이 있음을 고려해 통상 협상 진행할 필요

Author Contacts

삼일PwC 경영연구원

이은영 상무

eunyoung.lee@pwc.com

김효진 선임연구원

hyojin.h.kim@pwc.com

삼일PwC 경영연구원

최재영 경영연구원장

jaeyoung.j.choi@pwc.com

www.samil.com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503W-RP-031

© 202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